

화장실 따라 달린 서해안 천리길



남 조의 권 (현화원이사, 현문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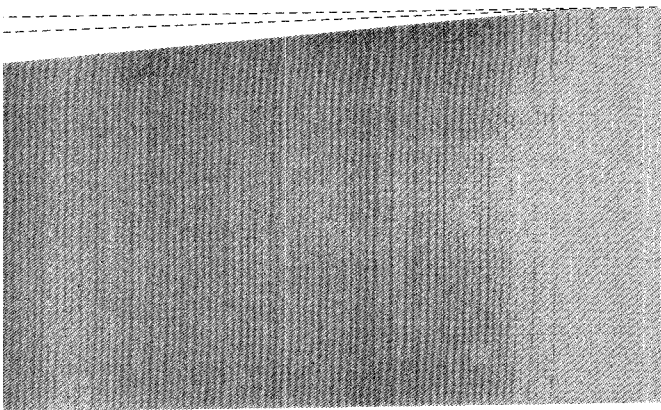
새롭게 건설 된 고속 도로의 화장실 사정은 어떠한지 살펴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완전 개통된 총연장 353 Km(인천~목포)의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보았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깨끗하기로 평판이 나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해왔음은 이미 지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지만, 새롭게 개통된 고속도로를 시발점부터 종착지까지 달리면서 화장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 그 동안 마음속에만 갖고 있던 생각을 결행하게 된 것이다.(2002. 1. 4-5)

전체적인 느낌은 고속도로 자체도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하여 직선으로 길게 연결된 것이 시원한 느낌을 준 것처럼, 모든 휴게소 건물이 새롭게 지어져 깨끗하고 여유스러웠으며, 따라서 화장실의 공간·설비 등도 건물에 걸맞게 우수 하였으며, 유지관리 또한 열심히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어 모든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휴게소 입구쪽(건물을 바라보고 오른쪽)의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넓은 실내에는 유리벽과 천창(Top Light)을 설치하여 조명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배기기능 그리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실내 한 쪽 공간에는 예외 없이 실내 정원이 만들어져 여행객의 피로를 덜어주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서산휴게소(하)의 경우는 화장실 접근 시까지 턱을 찾을 수 없도록 완만한 경사로 외부 바닥을 마감했으며, 군산(하)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화장실 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지붕까지 미련되어 비오는 날에 우산을 펴는 번거로움까지 해결해 주고 있었음), 특히 이곳 화장실의 세면대 거울은 크지 않으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어 유지관리하기에도 편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창, 고인돌(상) 휴게소의 어린이용 소변·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노란색 벽 타일이 양장스러운 소아용 변기 모형과 아주 좋은 색조를 연출하고 있었으며, 군산(상)의 소변기 앞에는 약간 높은 턱의 넓은 대리석을 깔아 사용자가 소변기에 바짝 다가서서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 배려 등이 특히 눈에 띄었다. 아울러, 화장실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먹고 달려본 천리 길이기에 몇 가지 주문을 덧붙이자면, 첫째 화장실 위치는 통일되어 있어 익숙한 여행객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휴게소에 들어서면 멀리서도 눈에 띄 수 있는 화장실 표시 픽토그램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 놓으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소변기 앞에 약간 턱이 있는 넓은 대리석을 깔아, 소변기에 바짝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군산(상)휴게소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장애인 화장실"보다는 "다목적 화장실"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군성(하)휴게소

둘째, 아직은 개통된 지 얼마 안되는 관계로 이용자 숫자에 비하여 화장실이 너무 크고, 부스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설계를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상의 기술을 발휘, 한적한 시간대에는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절약 등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것으로 우선 표시싸인을 장애인 화장실에서 다목적 화장실로 바꾸고, 내부시설도 점진적으로 다목적용으로 보완·개편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노인이나 임산부 등이 장애인일 수가 없으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고속도로로 휴게소 화장실에만 한정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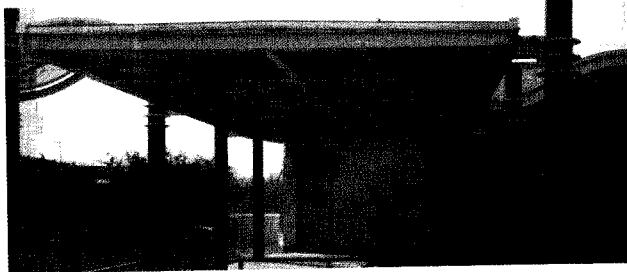
아울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가 조금씩 달랐고, 일반용 화장실과 조금 떨어져 설치되어져 있는 곳도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남자는 남자쪽, 여자는 여자쪽, 일정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다.

넷째, 대변기 부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이것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님)은 뚜껑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여 놓았으면 좋겠고, 새롭게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때에는 세면기 앞 거울의 크기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절(현재는 필요이상으로 천정까지 닿아있는 경우도 있음)되었으면 하는 느낌이며, 현재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불필요한 시설이었으나 이용자가 많아지는 장래를 대비하여 이용 시 한 줄서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휴게소 실정에 맞도록 지금부터 마련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매너도 조금은 더 성숙되어졌으면 좋겠다.

대변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화장실 화장지(부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두루말이 화장지)만을 사용하고, 그것을 꼭 변기 속에 버리고 물을 내림으로 부스 내의 청결유지와 냄새 제거에 일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소변 시에는 소변기 앞에 바짝 다가서서 용무를 봄으로 소변이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일도 화장실 유지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화장실 이용 시에는 한 줄로 서서 질서를 지키고, 금연 구역인 화장실 내에서 금연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세면기에 물이 튀어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놓는 등의 일들은 기본에 속하는 사항들일 것이다.

최고지정속도 110Km에 걸맞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들이 충분한 유지관리와 이용매너개선으로 오래도록 깨끗하게 관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며, 공중 화장실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여러분과 휴게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는 바이다.



▲ 장애인 주차장이 화장실 최근접거리에 위치 해 있다. 군성(하)휴게소